

#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광포럼 전주 개최

## 13일~16일 10개국 77개 회원도시·38개 민간회원대표단 참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관광도시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관광포럼이 전주에서 처음 개최된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와 민간여행사, 국내외 관광기구가 전주를 찾게 됨에 따라 전주시는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은 물론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 77개 회원도시, 38개 민간회원대표단, 국내외 관광기관 및 초청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제7회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포럼이 열린다.

전주에서 관광을 주제로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PO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TPO사무국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말레이시아 페낭시장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시장 등이 전주를 찾아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TPO포럼에 참가하는 각국별·도시별 참가규모를 보면 한국에서는 국제행사를 주관·협찬하는 개최지 전주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등에서 13명, 부산지역에서 12명, 인천광역시 11명, 통영시 5명, 대전광역시 4명 그리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한국 17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회장도시인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가 가장 많은 8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전주를 방문, 중국 산둥성 옌타이 6명, 스완성 청두와 칭다오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페낭시, 타이핑, 이포시 등 3개시,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시, 일본에서는 후쿠오카시 등이 전주를 찾아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급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TPO포럼은 13일 네트워킹 만찬을 시작으로 14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노인관광을 주제로 기초연설이 진행되고 이어 오후에는 언어권별로 관광교류협력 활성화 방안과 공동사업, 제안사업설명회, 실무급 분임토론, 환영만찬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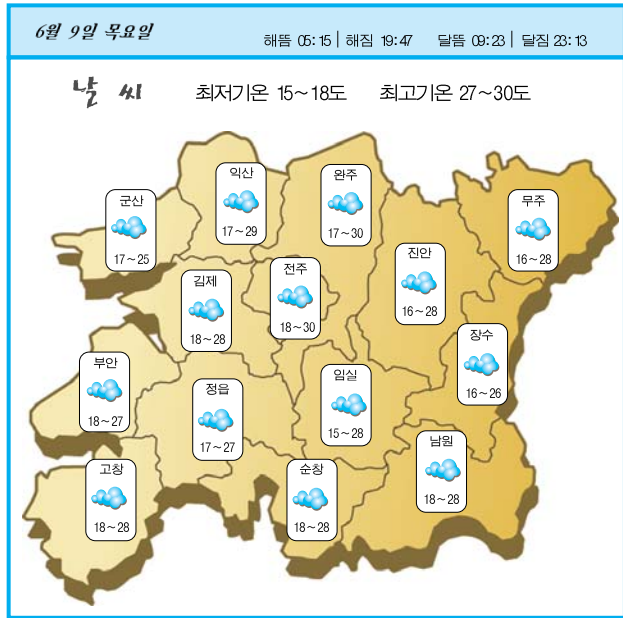
15일에는 2017년도 TPO시장총회 개최지와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제28회 운영위원회와 전주·익산·군산을 연결한 관광자원 시찰과 TPO 베스트 어워드, 환승민찬 순으로 펼쳐진다.

이번 TPO포럼 특징은 전주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등 4개 회원도시

가 모여 포럼 유치와 개최를 위한 실무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최지인 전주시가 행사장소 및 진행, 환영만찬을 준비하고, 전라북도가 개막식 행사 공연과 환영오찬, 익산시가 군산시가 탐방시찰에 대한 프로그램 및 오찬을 지원하는 등 협력관계를 통해 국제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전주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TPO포럼 개최 장소로 전주시가 결정된 이후 당초 예상보다 포럼 참가규모가 크게 늘어 말레이시아 페낭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대표단을 꾸려 포럼에 참석하는 등 개최지인 전주와 전라북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TPO포럼을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 관광인들이 주축이 된 전주다운 관광축제형 국제관광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학교-국립무형유산원 협력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과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8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 세미나실에서 이남호 총장과 강경환 국립무형유산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가졌다. 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진흥 가치 확산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과 연구,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옥교육의 메카인 전북대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한옥살치 및 한옥의 특화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신인류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무형유산 관련 교육조사 및 연구, 전시, 공연 등을 함께 열고 학생 인턴십과 교육생 학점 인정 등의 인력교류도 추진해 이 분야에서 우수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남호 총장은 "급격한 산업화로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범국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양 기관이 힘을 모으게 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발전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오평근 전주시의원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후속대책 주문

### "대규모 주차장 조성 관광객 유치 전략 필요" 등

전주시의회 오평근 의원이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에 따른 발 빠른 후속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오평근 의원(경회2동)은 8일 제38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에 이은 전략적 후속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전주시는 한옥마을이 2010년 11월 27일 국내에서 최초로 도심형 슬로시티로 지정된 후 관광객이 크게 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났다"며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관광객 유치로 연결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제1기라고 하면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슬로시티가 가진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인 제2기 슬로시티 전주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1시간은 6030원보다 귀하나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문로 참여연대에서 청년유니온이 개최한 2016 청년층 최저임금 인식조사 결과발표 노동계·시민사회·청년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나,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전주시에 진입하는 주요거점인 색장동 일원(남원방면), 평화동(순창방면), 삼전동(정읍방면), 금상동(동전주 IC, 진안방면), 조촌동(전주IC, 익산·군산 방면)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한옥마을, 덕진공원, 이중호수, 전주 수목원 등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한옥마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한옥마을이 전국적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면서 각종 불편을 감수하는 한옥마을 원주민들을 위한 주차문제 해결 방안도 요구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 이재연구소, 내일 학술대회 개최

#### 호남 대표 실학자 이재 선생 학문과 사상 재조명

호남을 대표하는 실학자 이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북대 이재연구소(소장 하우봉)가 제9회 학술대회를 통해 호남을 대표하는 실학자 이재 황윤석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10일 전북대 인문대 1호관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문·사·철'을 통해 본 이재 황윤석의 학문세계를 주제로 이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살핀다. 전북대 윤상원 사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기상 전 전북도 기획실장의 '주역 접

을 통해 본 이재 황윤석의 천명관'에 이어 이상봉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의 황윤석과 김원행의 사계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박순철 전북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이재 황윤석 이재년고의 서예내용과 사예관'을 최영성 부여문화진흥대학교 교수는 '18세기 노론계 낙파의 현실인식과 대응논리'를 주제로 발제한다. 하 소장은 "이재 선생은 '근자는 한 가지 사물이라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박학의 정신으로 다양한 분야에 방대한 업적을 남겼다"며 "매년 이어지는 학술대회를 통해 이재 선생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 세계에 계속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무주군의의회  
MUJU-GUN COUNCIL  
mujucc.gaontec.co.kr

군민 郡民 중심 中心의  
민주의회 民主議會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통문화의 장



# 안팎을

Banditgol  
Traditional Crafts Culture Village

# 전통공예 문화촌

